욕망과 사랑통해 상실된 자아찾기

영화평_피아노

영상과 음악으로 그려낸 침묵의 세계
감상·연민 배제, 현실성으로 감동 확보

영화가 시작되면 화면은 음울하고도 붉은빛으로 가득하고, 이것이 벙어리 아다가 손가락 사이로 바라보는 세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격정의 빛깔인 것이다.

'피아노'는 성, 욕망, 사랑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는 삶의 의지, 그리고 존재의 확인에 관한 영화이다.

소통과 단절의 이중성

미혼모 아다(홀리 헌터)는 결혼을 위해 런던에서 척박한 뉴질랜드 19세기의 뉴질랜드로 건너온다. 그녀에겐 어린 딸과 피아노가 있다. 피아노는 벙어리인 그녀가 가진 유일한 언어였으며, 동시에 스스로를 침묵의 세계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분리시키는 벽이었다. 이것을 이해못하는 남편 스튜어트(샘넬)는 피아노를 바닷가에 버리고 가지만 그녀는 남겨둘 월어버린 셈이다. 급기야 이웃에 사는 베인스(하비 키텔)에게 피아노 운반을 부탁하게 되고, 신들린 듯 피아노를 연주하는 아다의 모습은 베인스를 반하게 만든다. 피아노를 사이에 둔 수수께끼 같은 사랑놀이에서 두 사람의 비로한 정서적·성적 결합관계가 시작되고, 아다는 원주민처럼 사는 베인스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본다. 그것은 성적 욕망과 수평파도 같이 휩싸여 오는 사랑이었다. 스튜어트는 원시림에서 이직 성세계를 모른 채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사람이다. 아다와 베인스의 격정은 그를 분노와 질투의 극한까지 몰고 간다. 결국 남편의 도끼에 아다는 손가락이 잘려 나가지만, 그속에서 그녀는 분연히 일어서는 자아를 확인한다.

아다를 아다이게 하는, 그녀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척 많다. 아직 성적으로 닫혀진 19세기의 노덕관(그녀가 늘상 입고 있는 철제로된 뼁침대는 이를 잘 반영한다), 그리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억압, 침묵으로 인한 외부세계와의 단절, 척박한 원시의 환경, 그녀의 존재에 대한 남편의 몰이해…. 이토록 철저히 닫혀진 자신만의 우물안에서, 세상은 그녀를 수용하지 못했고 그녀 또한 세상에 기대하는게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피아노를 통해 아다는 격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모든 억압적 요소를 뚫고서 결국 아다가 만난 것은 끈질기게 살아내야 하는 삶, 그 생명력의 정체였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움켜쥔 채 더욱 당당한 얼굴 표정이나, 바닷속에서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아다의 모습은 모든 것을 떠나 그 자체로 가슴을 뛰게는 감동이다. 이 모든 것을 감독 제인 캠피온은 감상과 연민의 시선이 아닌 엄정한 현실성으로 담아낸다.

미세한 떨림까지 포착

그러나 '피아노'의 진짜 미덕은 영화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도, 그래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영화만의 '결'이다. 표면적인 내용을 이끌어나가는 영상과 사운드의 절합체인 결의 깊이가 영화의 감동을 만드는 것이다. 남편을 찾아 뉴질랜드 해안에 도착했을 때 휘몰아쳐오는 파도는 그녀 앞에 다가올 어떤 폭풍우를 예고하는 동시에 세계와 인간의 조화를 보여준다. 손끝, 눈썹끝의 떨림까지 잡아내는 인물 클로즈업의 빈번한 사용은 아다의 정충체인 심리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카메라의 '눈'이다. 후반부 부명한 강물에 날개를 씻는 삽입화면은 단지 시간 경과를 암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다라는 한 존재의 다시 태어남을 읽게 한다. 언뜻 원주민의 질서와 유럽 문명 언저리의 대비를 통해서 19세기 뉴질랜드에 이식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듯하나 여기서 더 어상 확대하지는 않는다.

결국 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제인 캠피온은 감성·상황·사고의 시각적인 종합화를 통해 관객의 동일화를 끌어내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단지 표면화된 스토리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있는 영상의 해석을 통해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체험을 갖는 것이다.

여성관객 몰리는 극장

'피아노'는 중국 첸 카이거 감독의 '패왕별희'와 함께 올해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다. 우리에겐 '서편제'의 본선 탈락이란 또한번의 좌절을 안겨준 깐느이기도 했다. (백인 우월주의가 관치는 그곳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부재와 영화인들의 한탕주의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현재 '피아노'를 트는 극장에는 여성 관객이 몰린다고 한다. 난 그네들이 영화에서 전정 무엇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중성이란 허울 앞에 성적 욕구도, 페미니즘의 문제도 한낱 불거리로 전락시켜버리는 천박한 상업적 사고사이에서, 혹은 현대적 감수성이란 미명하에 인간 본성을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고 심각하게 전체하는 '현대성'예술영화들 사이에서 '피아노'는 존재와 욕망에 대한 간절하지만 깊이있는 성찰과 건강한 대중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김 미 령
(국문·4)

□영희문화

탈무드 정기공연

수원캠퍼스 음악동아리 '탈무드(TALMOOD)'는 오는 2일 오후 4시30분 공과대 시청각실에서 '제18회 탈무드 정기공연'을 갖는다.

탈무드는 이번 공연에서 '하여가' '너의 결혼식' 'It's not love', 자작곡인 '안녕'등 15곡을 선보인다. 기타를 맡고 있는 조용제(식공·2)군은 "음악에 관심있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고려품세 가을공연

하드락 그룹 고려품세가 오는 5일 오후 4시30분 공과대 시청각실에서 '제10회 가을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Rock & Roll(레드 제플린)' 'Dream on (에로 스미스)' 'You could be mind'등 70년대에서 80년대초까지의 음악 15곡 정도를 선보인다.

태(胎) 연기교실

서울캠퍼스 정경·가정대 연극동아리 극단 '태(胎)'는 1일부터 17일까지 정경대 212강의실에서 연기교실을 연다.

학생들과 삶의 표현으로서의 연기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표현능력을 터득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이번 연기교실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일(월) 벽계기와 축제풀이 △3일(수) 배우의 조건과 역할, 표현능력키우기 1-1 △5일(금) 연기의 적, 표현능력키우기 1-2 △8일(월) 표현능력키우기 2(보기와 보여주기) △10일(수) 감각훈련 △12일(금) 감성훈련 1 △16일(화) 감성훈련 2 △18일(목) 표현능력키우기 3(상상과 꾸미기) △19일(금) 표현능력키우기 4

□연 극

아리랑 '아리랑2'

'망국의 한과 한민족의 슬픔을 그린 영화 아리랑'

그 아리랑이 식민지 시대와 현재를 넘나드는 열린 형태의 극 구조, 연극 '아리랑2'로 되살아나고 있다. (연출 권호웅)

영화 아리랑의 줄거리 진행과 함께 배우로 참여하는 현재의 극단 연출가와 단원들은 계속적으로 현실의 문제(10·26, 광주, 고문, 현 문화상태, 정신대 문제 등)를 얘기함으로써 현재의 아리랑 고개(식민지 시대에 우리 민족이 넘어야 했던 아리랑 고개가 민족의 독립이었다는 전제하에, 현재 우리의 과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10월 22일-11월 15일 평일 4시30분, 7시30분, 토·일요일 3시, 6시 예술극장 한마당(☎743-1266, 766-2240)

□새로 나온 책

'열려라 컴퓨터 음악'

집에서 창출하는 오케스트라

PC음악에 관심이 있는 PC 초보자가 컴퓨터 음악에 쉽게 입문하여 PC를 노래방으로 활용하는 법에서부터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도 할 수 있는 컴퓨터 음악 입문서 '열려라 컴퓨터 음악'(허재용作)이 출판되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이 작곡한 곡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에서 전기를 악기에 이용한 그룹사운드의 강력한 사운드까지 시대가 변하면서 음악도 변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음악방법론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컴퓨터 음악이다. 컴퓨터 음악에서는 우리가 작곡자이자 편곡자이고 동시에 연주자가 되어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오케스트라 규모의 음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맘대로 기타와 드럼을 조정하여 박진감 넘치는 그룹사운드를 창조할 수도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컴퓨터 음악의 형태를 일반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1장에서는 PC음악의 분류와 음악이론 등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애드립 음악카드의 구조에서부터 음악을 활용하는 예제까지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고 특히 독자 스스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옥소리와 사운드블래스터를 다루고 있다. 옥소리에서는 옥소리의 특징 그리고 다른 유아카드들과 구분되는 옥소리만의 기능에 장점을 두어 옥소리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사운드블래스터에서는 사운드블래스터의 가장 큰 장점인 멀티미디어에서의 지원과 음성지원 기능 그리고 윈도우즈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미디를 다룸으로써 미디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한 걸음 나아가 실제로 곡을 만드는 기술까지도 다루어 보았다.

연암출판사/1만2천원.

인터뷰 우리학교서 '로젤' 공연 **김 지 숙**

"혼자서 모든 관객과 싸웁니다"

일인극 당분간 쉴 예정…결혼은 '나'를 찾는 과정

총여학생회가 주최한 '성희여성문화제'의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정오경 산대앞 잔디밭에서 연극인 김지숙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극 '로젤'의 공연을 위해 우리학교를 방문한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는 학우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거리감없이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현재 경북대·서울대·외대 등 여러학교를 순회공연하면서 우리학교까지 오게 됐는데 대학공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요.

▲특별히 교육적·제도적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학교를 돌며 느낀 것은 학생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충분히 인간다움의 도리를 배워야 할 시기에 허무를 체험하지 않나하는 생각과 문화시설이 빈약하여 문화를 못누린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경희대생들은 학풍의 영향인지 산의 정기를 받아서인지 당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인극은 초기상태인데 힘들지는 않던지요.

▲혼자서 그 모든 관객과 싸워야 한다는 점이 벅차고, 무대에 홀로서니까 공연도중 의지되는 것이 없지요. 나 자신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 주려하는 노력과 욕망때문에 기(氣)가 많이 소모됩니다. 반면 혼자하는 것에서 나오는 표현상의 자유(?)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로젤이후 일인극은 당분간 쉴 예정이예요.

—'미동령도 창녀도 될뻔한 여자'는 생활의 이야기가 매우 솔직하고 진보적이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많이 읽었으면 합니다. 고통을 겪게된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그 대상으로서의 남성이 아니라 동료의식을 가지고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스스로의 노력이겠죠.

—성폭력 상담소 자문위원도 하시고 순천향 정신병원에서의 사이코드라마를 중연하는등 연극 내·외적인 활동으로 '여성문제'를 몸소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문제'의 정의를 알고 싶어요. 여성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연극을 모두 '페미니즘'이라 볼 수는 없지요. 그리고 아나라의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한 일들에 대해 어제(26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감사패를 주었어요.

비단 '윤금이씨 사건'뿐만 아니더라도, 미군의 주둔이후 그들의 잔혹행위는 몇실년간 계속 되어왔는데 이제와서 이런다는 것 자체가 약소국의 아픔이기보다는 너무 큰 민족의 수치로 여겨집니다.

10월30일에 연세대에서 '윤금이씨 임주기 추모제'때는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아마 연극만은 못할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으로서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지요.

▲결혼은 어느때에도 그리 지장이 있진 않다고 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어떤이를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또다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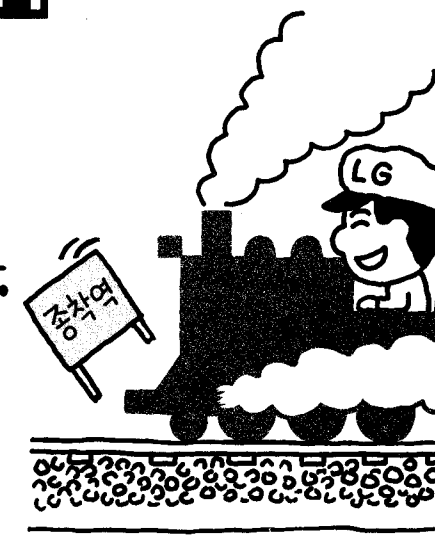
나는 일을 통하여 나의 생명력을 알고 만끽하며 나를 찾아가는 중이며, '나를 찾아 결혼한다'면 결혼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연극을 통해 여성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싶은 바램이 있어요.

(이유경 記者)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혁신에는 종착역이 없다.

경영혁신은 세계 제일이라는 높은 목표를 향해 끝없이 매진하는 종착역이 없는 여정이다.



"종착역이 없는 여정"

레니어 회장의 자신감

작년 4월 럭키금성의 제일시와 합작투자계획 맺고 있는 미국의 하니웰사장 방문하여 레니어 회장과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작년 경쟁력에서 다국적군이 승리하는 데 원대한 활약을 한 것은 역시 항공기였다. 하니웰사는 비록 그 항공기들의 유무선 활약을 가능하게 한, 첨단 컴퓨터 응용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하니웰사의 레니어 회장은 이 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설 날은 멀지 않으리라, 일본은 자기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니웰사의 세계 제일을 위한 결단

하니웰사는 지난 1986년 이전까지는 제어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었다. 앞에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핵심부품 개발 비용과 위험부담을 감안할 이 세계의 우량기업인 하니웰사조차 모든 사업을 다 감당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하니웰사는 '86년부터 경영혁신을 시작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이 '우리는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는 사업만을 한다' 는 이주 간단하고도 명쾌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 이전 하니웰사의 입장에서도 컴퓨터와 제어기기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결정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 컴퓨터부문은 시장의 규모면에서나 떨어난 발용성을 고려할 때 많은 잠재성을 가진 사업이었다. 이때에 하니웰사는 냉정한 판단에 의해 컴퓨터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물론 이 결정의 밑바닥에는 제어기기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리하여 하니웰사는 프랑스의 '불(BULL)' 이라는 회사에 컴퓨터 사업을 매각하고, 대신 상업용 항공기 제어사업을 인수하여, 발전제어, 공장제어, 항공기제어 등 제어기기 분야의 사업에만 경영자원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하니웰사는 경영혁신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이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 되었다.

경영혁신은 세계적 추세

지금 하니웰사 뿐만 아니라, AT & T, 애플, EDS 등도 비장하여 아주사나, NEC 등 소위 세계 주요기업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살기 힘들고 이미 21 세기를 대비해 철저한 경영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인재가 경쟁의 주도기업임을 생각하고, 그 인재들을 통해 철저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것은 흔히 우리 기업들이 어떤이나 그들로 고용 안 한 회사는 소위 인적 자원 비리는 공동이 아니다. 최고 경영자의 결정이 지휘하에 그들이 과거에 그 분야에서 최 고라고 자부해왔던 사업마저도 버려없이 정리하고가 하면, 많은 인원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체질을 구조개혁 하거나, 예컨대 등 그에서 단축 시대하는 실현이 위해 전기 회생기업도 있다고 이원다.

종착역이 없는 경영혁신의 여정

그래서 비록 그들보다는 좀 느렸지만, 국내 최초로 '21 세기를 향한 경영기술' 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기 위한 경영혁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한마디로 대변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도라 하는 순환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부딪치는 인재의 상해물과 부작용은 극복하지 못하고 노래하는 경우도 많다. 경영혁신을 하는데 '이기까지가 끝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발전의 한계가 되고 만다. 경영혁신은 끝임없이 다 듣고 노력을 지향하여 주기 해야 하는 '종착역이 없는 여정' 인 것이다.

—구자경회장 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